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	과 장 백영란 사무관 허주형	042-481-5575 042-481-8150
  공공누리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		2019년 11월 1일(금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화학·의료 분야’ PCT 국제특허출원 최근 5년 연속 증가세

- 최근 5년간('14~'18) 특허청에 접수된 화학·의료분야
PCT 국제특허출원 동향 분석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우리청에 접수된 화학·의료 분야¹⁾의 PCT 국제출원²⁾은 연평균 11.2%의 높은 성장세로 증가('14년 3,126건 → '18년 4,772건)했다. 전체 PCT 국제출원이 연평균 6.6%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 이 분야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1 참조]
- 화학·의료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, 유기정밀화학 19.7%, 식품화학 17.6%, 재료/야금 17.3%, 의료기술 13.9%, 의약 11.7%, 표면기술/코팅 11.2%, 바이오기술 10.6% 순이었다. [붙임 2 참조]

1) 기술 분류 통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에서 국제특허분류(IPC)에 대응하여 35개 기술로 분류한 IPC-기술 분야 연계표(IPC Concordance Table)*를 따랐으며, ‘화학·의료분야’는 화학분야에 기구분야 중 화학에 기반을 둔 의료기술 및 생물물질분석을 포함하였다.

* WIPO 35개 기술은 전기(전기기계/에너지, 오디오/영상기술, 원거리통신, 디지털통신, 기본통신프로세스, 컴퓨터 기술, 전자상거래, 반도체), 기구(광학, 측정, 기구제어, 의료기술, 생물물질분석), 화학(유기정밀화학, 바이오 기술, 의약, 고분자화학/폴리머, 식품화학, 기초재료화학, 재료/야금, 표면기술/코팅, 마이크로구조/나노기술, 화학공학, 환경기술), 기계(기계 조작, 공작기계, 엔진/펌프/터빈, 섬유/제지기계, 기타특수기계, 열처리/장치, 기계요소, 운송) 그리고 나머지(가구/게임, 기타소비재물품, 토목공학)로 분류된다.

2) 특허협력조약(PCT)에 의한 해외 특허출원 절차이며, 한 번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PCT 가입국('19.10.현재 153개국)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다.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,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PCT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(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)를 받아보고 최초 출원일부터 30개월 내에 외국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또한, 이와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기술분야 중 화학·의료 분야의 점유율은 '14년 25.1%에서 '18년 29.3%로 늘어났으며, 기술별 점유율을 보면 의료기술 21.1%(4,176건), 유기정밀화학 11.5%(2,278건), 의약 11.1%(2,197건), 바이오기술 11.0%(2,178건) 순으로 화학·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 [붙임 3, 4 참조]

- 이러한 화학·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 증가는 정밀화학에 기반을 둔 융·복합 신소재 및 미래형 헬스케어와 관련한 해외 시장진출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.

- 화학·의료 분야의 출원인 유형별 증가율을 살펴보면, 중소기업이 14.5%, 대학 13.3%, 대기업 9.2%, 중견기업 9.1%, 연구기관 8.2% 순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. [붙임 5 참조]

- 출원인 유형별 점유율은 대기업 26.9%, 중소기업 26.6%, 대학 17.0%, 중견기업 10.4%, 연구기관 6.0% 등으로 전체 기술분야*에서 대기업 점유율이 40.3%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5, 6 참조]

* 전체 기술분야 출원인 유형별 점유율: 대기업 40.3%, 중소기업 24.0%, 대학 8.4%, 중견기업 7.6%, 연구기관 3.8%

- 이는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 소재 및 의료 분야의 특성상 출원인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.

- 다출원인을 살펴보면, 대기업은 엘지화학, 포스코, 삼성전자, 씨제이 순이며, 중견기업은 아모레퍼시픽, 한미약품 순이고, 중소기업은 덕산네오룩스, 아모그린텍 순이었다. [붙임 7 참조]

○ 또한, 연구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 순이며, 대학은 서울대학교, 고려대학교, 연세대학교 등 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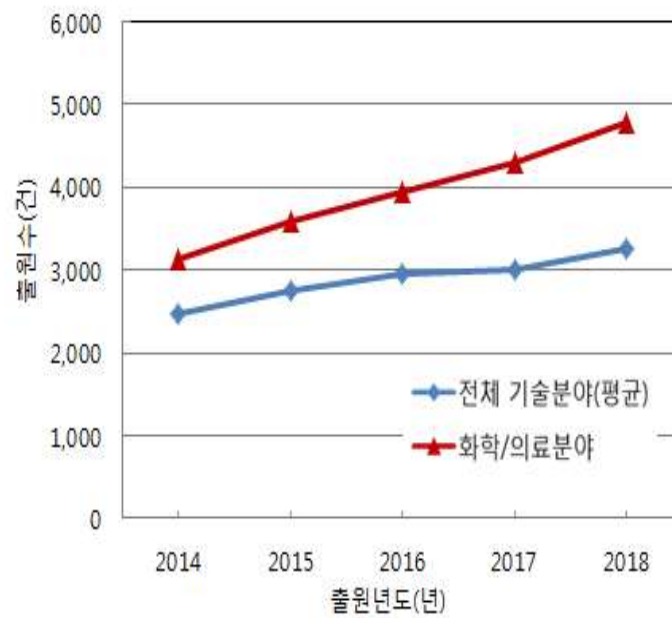
□ 특허청 백영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“융·복합 신소재 및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약진으로 화학·의료 분야의 PCT 국제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”면서, “산업성장에 기초가 되는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, 기술의 성숙 및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특허권 확보가 유리한 PCT 국제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.”고 말했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허주형 사무관(☎ 042-481-8150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[붙임 1] 최근 5년간 PCT 국제출원 전체 및 화학·의료 분야 현황

	출원년도					연평균 증가율 (%)
	'14	'15	'16	'17	'18	
국제 출원	13,138	14,594	15,595	15,790	16,991	6.6
국제 조사 ³⁾	12,460	13,777	14,826	15,072	16,300	6.9
화학·의료 분야	3,126	3,582	3,956	4,311	4,772	11.2



3) PCT 국제출원되고 국제조사가 수행된 건수

**[붙임 2] 최근 5년간('14~'18) PCT 국제출원의 화학·의료 분야 출원수
및 연평균 증가율**

기술분야	5년 누계 (건)	연평균 증가율 (%)
유기정밀화학	2,278	19.7
식품화학	640	17.6
재료/야금	1,676	17.3
의료기술	4,176	13.9
생물물질분석	432	11.9
의약	2,197	11.7
표면기술/코팅	965	11.2
바이오기술	2,178	10.6
환경기술	862	5.1
기초재료화학	1,440	4.4
고분자화학/폴리머	1,605	4.0
화학공학	1,209	4.0

**[붙임 3] 최근 5년간 PCT 국제출원의 전체 기술분야 중 화학·의료 분야
점유율**

기술분야	출원년도 및 점유율(%)				
	'14	'15	'16	'17	'18
화학·의료	25.2	26.1	26.8	28.7	29.3

[붙임 4] 최근 5년간('14~'18) PCT 국제출원의 화학·의료 분야 내 세부 기술별 점유율

기술분야	5년 누계 (건)	점 유 율 (%)
의료기술	4,176	21.1
유기정밀화학	2,278	11.5
의약	2,197	11.1
바이오기술	2,178	11.0
재료/야금	1,676	8.5
고분자화학/폴리머	1,605	8.1
기초재료화학	1,440	7.3
화학공학	1,209	6.1
표면기술/코팅	965	4.9
환경기술	862	4.4
식품화학	640	3.2
생물물질분석	432	2.2

[붙임 5] 최근 5년간('14~'18) PCT 국제출원의 화학·의료 분야 출원인 유형별 출원수, 연평균 증가율 및 점유율

순위	출원인 유형	5년 누계 (건)	연평균 증가율 (%)	점 유 율 (%)
1	중소기업	5,258	14.5	26.6
2	대 학	3,352	13.3	17.0
3	대 기 업	5,308	9.2	26.9
4	중견기업	2,056	9.1	10.4
5	연구기관	1,189	8.2	6.0
6	개 인	1,804	7.7	9.1

[붙임 6] 최근 5년간('14~'18) PCT 국제출원의 전체 기술분야 출원인 유형별 출원수 및 점유율

순위	출원인 유형	'14~'18 누계 (건)	점 유 율 (%)
1	대 기 업	30,649	40.3
2	중소기업	18,241	24.0
3	개 인	10,204	13.4
4	대 학	6,413	8.4
5	중견기업	5,752	7.6
6	연구기관	2,910	3.8

[붙임 7] 최근 5년간('14~'18) PCT 국제출원의 화학의료 분야 다출원인 점유율

순 위	출원인명	점유율 (%)	순 위	출원인명	점유율 (%)
대기업			중견기업		
1	엘지화학	9.2	1	(주)아모레퍼시픽	2.2
2	포스코	3.7	2	한미약품주식회사	0.7
3	삼성전자주식회사	2.0	3	주식회사 동진세미켐	0.3
4	씨제이	1.5	4	주식회사 삼양사	0.3
5	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	1.2	5	주식회사 대웅	0.3
6	주식회사 두산	0.9	중소기업		
7	엘지전자	0.7	1	덕산네오룩스주식회사	0.6
8	(주)엘지하우시스	0.6	2	주식회사 아모그린텍	0.3
9	한화케미칼주식회사	0.6	3	주식회사 루트로닉	0.2
10	동우화인켐	0.6	4	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	0.2
11	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회사	0.5	5	(주)케어젠	0.2
12	엘지생활건강	0.5	5	주식회사 엠디헬스케어	0.2
대학			연구기관		
1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	1.7	1	한국생명공학연구원	0.9
2	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	1.2	2	한국화학연구원	0.8
3	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	0.9	3	한국생산기술연구원	0.7
4	한국과학기술원	0.7	4	한국한의학연구원	0.6
5	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	0.7	5	한국과학기술연구원	0.4